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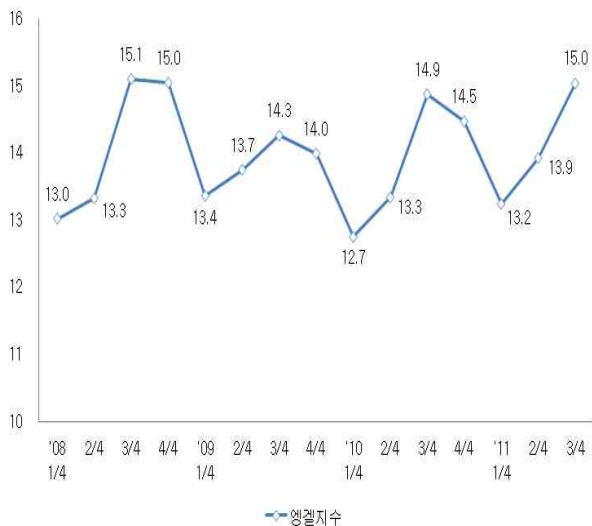
엔겔지수 3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3/4분기 전체 가구의 엔겔지수는 15%로, 고유가로 물가가 급등하였던 2008년 3/4분기 15.1%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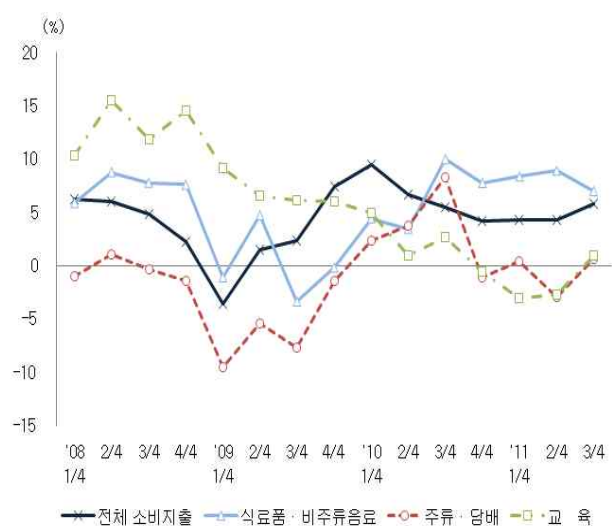
- 엔겔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·비주류음료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소득 가계일수록 낮고 저소득 가계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, 최근 엔겔지수 상승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형편이 악화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음.
- 2011년 3/4분기 엔겔지수가 높아진 것은 전체 가구 소비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5.8% 증가한 반면 식료품·비주류음료 지출이 가격 상승으로 7%나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으며, 식료품·비주류음료 중에서도 곡물(12.5%), 육류(5.0%), 조미식품(65.1%)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.
- 이에 반해 주류·담배와 교육비 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0.7%, 1% 증가하여 낮은 수준을 나타냄.

〈그림 1〉 전체 가구 엔겔지수



자료: 통계청.

〈그림 2〉 항목별 전년동기대비 지출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.

■ 일부 전문가들은 엔겔지수 상승이 저소득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향후 소비자물가가 안정될 경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- 일부 전문가들은 2011년 3/4분기 엔겔지수가 상승한 것은 농·축·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추세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평가하고, 농·축·수산물의 경우 가격 급등락이 심해 엔겔지수도 이에 따른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.
- 또한, 계절적 요인에 의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안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엔겔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, 정부는 저소득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비자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함.

(2011년 3/4분기 가계동향 등, 통계청 등, 11/18)